지역프랜차이즈를 키우자

상 자영업자 안전망

소상공인 경쟁력 높여 정착률↑ 폐업률↓

광주·전남 폐업률 높아…지자체 향토 브랜드 육성 나서야

자영업자의 창업대비 폐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광주·전남 자영업자를 위해 지자체가 지역 프랜차이즈 산업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브랜드 프랜차이즈는 자영업 시장 진입의 '안전판'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는 '음식문화'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프랜차이즈 산업을 지역 경제활성화와 연계시켜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잇따른다.

2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자영업 진출자의 성공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자영업 창업 뒤 1년 생존률은 70%, 3년 생존률은 45%에 불과하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자들의 창업대비 폐업률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

지난2011년 광주·전남지역의 자영업체는 20만1000개, 종사자 수는 38만5000명으로 각각 지역 사업체의 86.9%, 종사자의 35.4% 수준이다. 이는 사업체와 종사자 비중 모두 전국 평균(각각 85.5%, 32.1%)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비중의 합은 42.6%로, 전국평균(37.4%)에 비해 5%p나 높다. 영세 생활형서비스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 이 가운데 창업대비 폐업률(99.3%)은 전국 평균(95.9%)에 비해 3.4%P나 높아 준비가 부족한 창업이 많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지역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은 지나치게 낮은 편이다. 매년 지역 프랜차이즈협회에 2~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비를 제공하는 전북도의 예를 살펴보더라도, 광주시의 프랜차이즈 산업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달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3 창업·프랜차이즈 박람회'의 경우 부스설치비를 지원받은 전북에서는 현대옥 등 지역 브랜드 7개사가 참여했지만, 광주지역에서는 레몬테이블과 카페보노 등 참여업체가 4개사에 불과했다.

(사)프랜차이즈협회 광주·전남지회 문행우 상근부회장은 "광주시는 프랜차이즈가 개인 사업이라는 이유로, 산업으로서의 관심이 부족한 편"이라며 "맛의 고장이라고는 하지만 광주의 맛을 전국적으로 상품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 적절한 지원책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역 프랜차이즈는 소자본으로 출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본사를 지역에 둔 프랜차이즈가 전국으로 뻗어나가면 물류는 물론, 지역 농산물 소비에도 도움이 된다. 타 지역의 유동성을 흡수해 지역 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 특히 지역 연고가 없는 가맹점은 수익 추구를 위해 무분별한 가맹사업을 펼치는데다 지역 마케팅이 힘들어 가맹점주에게 손실을 끼칠 수 있지만 지역 프랜차이즈는 밀착 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문 부회장은 "월 매출 1000만원이 되지 않는 자영업자가 80%가 넘는 상황에서, 지역 프랜차이즈는 창업자들의 정착률을 높이고, 폐업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 진출이 높은 지역 특성상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자영업자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경차 '모닝'·트럭 '포터' 경기침체에 판매 1·2위

경차와 소형트럭이 상반기 국내 자동차 판매에서 1,2위에 오르는 이변이 나타났다. 어려운 경제 상황의 단면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상반기 내수 판매실적을 결산한 결과 기아자동차의 경차 '모닝'은 올해 상반기까지 4만6809대 팔리며 차종별 판매 1위를 차지했다.

모닝이 이런 추세를 유지하면 1998년 대우자동차(현 한국GM)의 마티즈가 8만8951대 판매로 1위를 차지한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경차가 '베스트셀링카'에 오르게 된다. 1999년 이후 2010년까지 현대자동차의 쏘나타가 연간 판매 1위를 지켜왔고 경기침체로 준중형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2011년과 2012년엔 아반떼가 베스트셀링카 자리를 차지했다.

올들어 모닝이 판매 강세를 보이는 것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1가구 2차량 문화가 서서히 확산되면서 경차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리를 중시하는 소비문화에 따라 큰 차보다 작은 차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도 모닝의 강세에 한몫했다.

하지만 모닝이 연말까지 베스트셀링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대차가 생산하는 상용차 포터가 판매량 4만6671대로 모닝과 불과 138대 차이로 판매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포터의 판매 강세 역시 경차와 마찬가지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소규모 창업에 뛰어드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동식 상점이나 운송수단 등으로 활용되는 소형트럭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베스트셀링카 순위는 1위 아반떼(11만1290대)에 2위 쏘나타(10만3994대)가 차지했다.

/연합뉴스

백화점 웃고 대형마트 울고

불황속 상반기 실적 희비

올 상반기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들의 상반기 실적이 엇갈렸다. 백화점은 미세하게나마 증가했지만 대형마트는 영업규제 영향까지 겹쳐 고전을 면치 못했다.

롯데백화점은 2일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기존점 기준 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도 상반기 기존점 기준 3.3%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3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 휴일 의무휴업의 영향으로 일제히 매출 하락을 기록했다.

이마트 매출은 기존점 기준 지난해 상반기보다 6.4% 줄어들었다.

신선식품(-9.2%), 가공식품(-5.4%), 생활용품(-6.3%), 패션·스포츠(-7.6%) 등 어느 하나 예외없이 감소세를 기록했다.

롯데마트 역시 상반기 매출이 5.7% 감소했다.

홈플러스는 상반기 매출 감소율은 5.9%에 달하고, 설이 있었던 2월과 가격비교 보상제를 시작한 지난달에만 한자릿수 매출 증가를 보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고객이 모델…기아차 '별난 레이' 홍보 기아자동차가 2일 '레이' 홈페이지(ray.kia.com)를 통해 3명의 레이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이색 레이 3대'와 특별한 사연을 공개했다. 사진은 차체 라인을 따라 스티치 문양으로 꾸미고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준 최철우(37)씨의 레이. 〈기아자동차 제공〉

최첨단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FEMS' 가동

금호타이어 여름철 에너지 절감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가 최첨단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가동으로 올 여름 에너지 절감에 앞장서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올 여름 지난 2009년 곡성공장과 평택공장에 구축한 '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를 통해 생산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과 가스(LNG), 물 등 모든 에너지의 사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제어해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 억제 및 사용량을 최적화하고 있다.

평택공장의 경우 FEMS를 가동하면 4.4%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어 연간 1.8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수요관리기간에는 300kw의 전력을 줄일 수 있어 피크전력관리에 따른 전력단가 인하로 인한 절감 비용만 연간 3000만원에 달한다. 금호타이어는 전력이 집중되는 시간엔 자체발전기를 가동하고, 한전에서 실시하는 '주간 예고 수요조정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편,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2일 평택공장을 방문, FEMS 구축현황을 점검하고 FEMS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 및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를 한 후, FEMS 도입 현장을 돌아봤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제1기 광주 청년무역사관학교 개교

46명 3개월 무역실무

지역의 무역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한 '제1기 광주 청년무역사관학교'가 개교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일 광주무역회관에서 김무한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와 김봉길 무역상사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광주 청년무역사관학교' 입학식을 가졌다.

무역협회는 지난 5월 일반모집 및 학교별 추천을 통해 총 125명의 지원자 중 최종 46명을 선발했다. 입학생들은 이달 무역실무와 비즈니스 영어를 집중 교육받을 예정이다. 특히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교수진들이 광주로 내려와 무역실무 과목과 해외 마케팅 등의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 강도 높게 진행될 계획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국민연금 가입자 작년 2000만명 돌파 수급자는 352만명

2012년에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가 약 352만명에 이르렀다. 또 총 가입자 수는 200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 국민연금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연보를 보면 2012년 12월말 가입자는 2032만9060명이었다. 2011년에 견줘 약 44만명이 늘었다.

이 가운데 직장가입자는 전체의 56%인 1146만4198명이며, 지역가입자는 856만8396명이고, 임의가입자는 20만 7890명(전업주부 등 여성이 17만5208명으로 84% 차지)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가입자가 2011년(376만5011명)과 비교해 약 8.5% 증가한 408만5194명(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제외)이었다.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351만8090명으로 2011년과 비교해 약 33만명이 증가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 (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1855.02 (-0.71)	526.92 (-0.89)	2.94% (-0.05)	1134.00원 (+1.60)

'노란우산공제' 출범 6년만에 가입자 30만명 돌파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을 위해 운영중인 '노란우산공제'가 출범 6년 만에 3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은 지난 2011년 7월 10만명을 돌파한 뒤, 2012년 10월에 20만명을 돌파하고 8개월만인 2013년 6월 30만명을 돌파했다.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적은 돈을 납부하면서 공제사유시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저축·보험과 달리 공제금에 대한 압류를 법으로 금지하는 사회 안전망차원의 지원제도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